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파닉스 및 발음 요소 분석

정 현 성
(한국교원대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22. 1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파닉스 및 발음 요소 분석

정 현 성 (한국교원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 12월에 고시되었다. 영어의 경우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네 가지 언어 기능으로 분류하던 것을 영어 지식정보의 '이해'와 '표현' 두 영역으로 재분류했다는 것이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영어과의 총괄적인 핵심역량으로 지향하면서 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능력과, 매체나 대화 상대방의 표현과 의사를 잘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중 초등학생의 경우 음소와 철자를 결합해 단어를 만들고, 그것을 이해하고 발화하는 능력을 통해 읽기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단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보다 큰 문장 단위나 담화 단위에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어휘 수준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기능도 이와 같은 의사소통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파닉스 phonics와 발음 요소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이러한 측면에서 2015 교육과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추가적인 개선 요소는 없는지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파닉스와 발음 요소를 중심으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을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를 중심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분석해 보고,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II. 내용 체계 비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분류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기능을 '이해 reception'와 '표현 production'의 두 가지 영역으로 통합하여 재분류하였다. 2015 교육과정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은 2022 교육과정에서는 '범주' 항목에서 '지식·이해'와 '과정·기능' 및 '가치·태도'로 새롭게 분류하고, 그 중 '지식·이해'를 '언어'와 '맥락'으로 나누었다. '내용 요소'는 새롭게 분류된 영역에 맞게 기술되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어떤 요소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을 학년급별로 기술해 봄으로써 두 교육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파닉스 및 발음 요소가 내용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2015 교육과정과 2022년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내용 체계의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기술 내용(교육부 2015, 199-201)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3~4학년	5~6학년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알파벳, 낱말의 소리 강세, 리듬, 억양	알파벳, 낱말의 소리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말하기	소리	소리를 따라 말한다.	알파벳, 낱말 강세, 리듬, 억양	알파벳, 낱말 강세, 리듬, 억양	모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말한다.	낱말, 어구, 문장	낱말, 어구, 문장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읽기	철자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한다.	알파벳 대소문자 낱말의 소리, 철자	알파벳 대소문자 낱말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적용하기
쓰기	철자	알파벳을 쓴다.	알파벳 대소문자	알파벳 대소문자	구별하기 적용하기

<표 2>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내용 체계의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기술 내용(교육부 2022, 7-8)

이해 reception

범주		내용 요소	
		3~4학년	5~6학년
지식· 이해	언어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과정· 기능		소리 식별하기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 내어 읽기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기

표현 production

지식· 이해	언어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과정· 기능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하기 알파벳 대소문자 쓰기 소리와 철자 관계 바탕으로 단어 쓰기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하기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 부호 바르게 사용하기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의 내용 체계를 보면 2015 교육과정에 비해 파닉스와 발음의 구성 요소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 내어 읽기’나 ‘강세’의 개념을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로 구체화한 것이 그 예이다. 읽기와 쓰기를 통합하여 ‘소리와 철자 관계 바탕으로 단어 쓰기’로 제시한 것도 바람직한 노력이라고 판단된다.

강세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단어 강세 word stress에 한정해서 지도하고 교과서를 제작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사실 강세는 단어 강세뿐만 아니라 복합어 등에 부여되는 강세와, 어구 즉 억양구 intonational phrase에 부여되는 문장 강세 sentence stress 및 핵 강세 nuclear stress가 있고, 이러한 강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리듬과 억양을 구현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능한 발화를 할 수 있다.

또, 파닉스를 지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해 단어를 쉽게 발음함으로써 읽기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철자는 배제되고 소리에만 집중해 음소 인식 phonemic awareness 활동을 포함하는 음운 인식 phonological awareness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2022 교육과정에는 소리와 철자의 연결을 좀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현’ 영역에서 ‘소리나 철자를 결합하여 단어 말하기’가 추가된다면 좀 더 파닉스의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파닉스 및 발음 요소가 내용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2015 교육과정과 2022년 교육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2015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 체계의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기술 내용(교육부 2015, 199-201)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듣기	소리	소리,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어구나 문장의 연음, 축약	식별하기
말하기	소리	소리를 따라 말한다.		모방하기
	어휘 및 문장	낱말이나 문장을 말한다.	낱말, 어구, 문장	모방하기 표현하기 적용하기
읽기	철자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한다.		식별하기 적용하기

<표 4>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 체계의 발음 요소 기술 내용(교육부 2022, 7-8)

이해 reception

범주		내용 요소	
		1~3학년	
지식·이해	언어	단어와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연음이나 축약	
과정·기능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 식별하기	

표현 production

지식·이해	언어	단어와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연음이나 축약	
과정·기능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 활용하기	

2022 교육과정의 중학교 내용 체계에는 2015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한다'로 명기되어 있던 파닉스 요소가 빠져 있다. 연구를 통해 통계가 나온 적은 없지만, 일선 영어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 교실에서 한 자리 숫자의 상위 몇 퍼센트 학생들만 단어와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것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자의 '영어 발음 연습(가칭)'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조차도 'heart'를 [ha:rt]로 발음하지 않고, 'hurt' [hɜ:t]로 읽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특히 모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대표 음가 이외에 다양한 음가로 발음되지만, 대학생들조차도 그 다양한 음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 중학교 수준까지, 좀 더 확장한다면 고등학교 수준까지도 파닉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자의 대표 음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육하고, 중학교에서는 철자의 대표 음가 이외의 다양한 음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표현' 영역의 '언어' 내용 요소에 '단어의 발음'이 추가되어야 하고, '과정·기능'의 내용 요소에는 '철자의 다양한 발음 활용하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2022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해온 초분절음의 내용 요소를 보면 Avery/Ehrlich(1992)에서 제시한 'stress, rhythm, intonation, linking, contractions'를 그대로 교육과정에 '강세, 리듬, 억양, 연음, 축약'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내용 체계를 보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강세가 추가되었다는 점이 좀 더 구체화 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음이나 축약'을 '이해' 영역에 두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표현' 영역에 굳이 둘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연음이나 축약은 리듬의 하위 영역으로 결국 리듬을 잘 구현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그것이 리듬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는 언어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Avery/Ehrlich(1992)에서 예로 들고 있는 연음은 'at all'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인접해 있을 때 앞 단어의 끝 자음을 다음 단어의 두음 onset으로 재음절화 resyllabification해서 발음하라는 것이고, 축약은 'I will'이 'I'll'로, 'it is'가 'it's'로 철자가 축약되면 발음도 축약 blend되어 나타나면서 모음 뒤의 자음 발음이나 축약되면서 생기는 자음군 consonant cluster 발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요소 모두 의사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아니고, 모두 리듬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리듬의 하위 영역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연음과 축약된 발음은 영어 원어민조차도 선택적으로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기술해야 하는 요소인지에 대해 의문이 크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 자주 관찰되는 '구개음화 palatalization'의 경우, 많은 영어 원어민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거나 그렇게 발음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Would you like ...?'라는 문장에서 'Would you'를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wʊdʒu]라고 발음하는 영어 원어민들도 많지만, 그렇게 발음하지 않고 구개음화 없이 [wʊd ju]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는 영어 원어민들도 많다.

II. 성취기준 비교

내용 체계의 분류에 따라 2015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별로 성취기준과 그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해와 표현 두 영역에 따라 성취기준과 그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22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파닉스와 발음 요소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지 학년급별로 제시하고,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한 후, 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 초등학교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 다음과 같이 파닉스와 발음 요소에 대한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교육부 2022, 10-12)

(이해)

[4영01-01] 알파벳과 쉽고 간단한 단어의 소리를 듣고 식별한다.

[4영01-02] 알파벳 대소문자를 식별하여 읽는다.

[4영01-03]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

[4영01-04]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이해하며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표현)

[4영02-01]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따라 말한다.

[4영02-02] 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별하여 쓴다.

[4영02-03]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쉽고 간단한 단어를 쓴다.

이러한 성취기준에 대해 2022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표 6>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3~4학년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 해설 및 적용 시 고려 사항(교육부 2022, 12-14)

<p>(성취기준 해설)</p> <p>[4영01-04] 이 성취기준은 단어, 어구, 문장을 개별 소리와 철자 관계에 주목하며 소리 내어 읽음으로써 독자적인 문자 해독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있다. 초기 학습 단계에서는 소리와 철자 관계가 규칙적이면서 친숙한 단어를 읽고, 나아가 두음이나 각운이 같은 단어를 포함한 어구나 문장, 의미를 알고 있는 어구나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며 소리와 철자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p> <p>[4영02-03] 이 성취기준은 단어를 쓰는 단계에서 학습자가 기계적으로 철자를 외워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개별 소리에 대응하는 철자를 생각해 보며 쓰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벳은 알파벳 모형 등 구체적인 조작물을 활용한 알파벳 대소문자 짝짓기, 이름 듣고 해당하는 알파벳 찾기, 신체를 활용한 알파벳 놀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알파벳 인식 등 다양한 읽기 활동을 통하여 재미를 느끼면서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지도할 때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여러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규칙을 찾도록 유도한다. 첫소리나 끝소리가 같은 단어 찾기, 중간 모음이 같은 단어 찾기, 철자를 조합하거나 변형하여 읽어 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노래와 찬트는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을 익히기에 좋은 언어 자료이므로 내용을 이해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따라 부르도록 한다. 단어 수준에서부터 어구, 문장, 간단한 대화 등의 순으로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의 강세, 리듬, 억양에 익숙해지게 한다.
--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파닉스와 발음 요소에 관련된 성취기준을 표 7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7>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파닉스 및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교육부 2022, 15-17)

<p>(이해)</p> <p>[6영01-01]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듣고 강세, 리듬, 억양을 식별한다.</p> <p>[6영01-02]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는다.</p> <p>(표현)</p> <p>[6영02-01]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을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말한다.</p> <p>[6영02-03]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 부호를 문장에서 바르게 사용한다.</p>
--

이러한 성취기준에 대해 2022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파닉스와 발음 요소에 대한 기술이 없고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을 표 8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8>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파닉스와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요약(교육부 2022, 15-19)

- 소리 내어 읽기의 목적은 단어, 어구,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도록 연습하는 데 있으므로, 의미 중심의 읽기를 위한 발판의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에듀테크의 발달과 함께 듣기, 읽기 도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듣기와 읽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이나 앱, 번역기 등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도 있다.
- 교사 또는 학습자 상호 간의 교정을 통해 알파벳 대소문자와 문장 부호 등 영어 표기법을 이해하고 알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과정에서 국어에서 배운 쉼표, 마침표, 물음표 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 말하기와 쓰기의 유창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사진, 실물 등의 시각 자료나 번역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말하기는 발음, 어휘, 내용 등에 대하여, 쓰기는 철자와 구두점, 어휘, 내용, 언어 형식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학습자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에 평가를 실시한다.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의 성취기준 및 해설과, 적용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의 파닉스 교육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4영02-01], [4영02-02], [4영02-03]의 내용은 National Reading Panel(2000)에서 분류하고 있는 종합적 파닉스 synthetic phonics, 분석적 파닉스 analytic phonics, 유추적 파닉스 analogy phonics, 두음-각운 파닉스 onset-rime phonics, 철자 활용 파닉스 phonics through spelling 등이 종합적으로 잘 결합 되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낱말 단위에서 어구, 문장 단위로 확장하여 소리를 내어 읽도록 한 것이나([4영01-04]),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바탕으로 단어를 써 보도록 한 것([4영02-03])은 파닉스 교육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2015 교육과정에 비해 진일보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 신체를 활용한 알파벳 놀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알파벳 인식 등 현대의 정서 및 기술 발전에 적합한 요소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파닉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려사항에 발음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및 평가 장에서 종합적으로 개념적인 언급만 되어 있을 뿐, 파닉스 및 발음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어서 교사 스스로 평가 항목과 방법을 개발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모국어에 대한 학습과 평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National Reading Panel(2000)에서는 음소 인식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음소 분리 phoneme isolation, 음소 유사도 찾기 phoneme identity, 음소 범주화 phoneme categorization, 음소 조합 phoneme blending, 음소 분할 phoneme segmentation, 음소 제거 phoneme deletion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정현성 2022), 영국에서는 파닉스 능력 검사 phonics screening check를 위해 철자-음소 대응 규칙 GPCs: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s을 목록화해 가르치고, 일반 단어와 유사 단어 pseudo words 읽기 판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Darnell/Solity/Wall 2017). 부록 1, 부록 2, 부록 3은 영국에서 사용되는 철자-음소 대응 규칙과 파닉스 능력 검사에 사용된 단어 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오리건 대학교 University of Oregon에서는 DIBELS[®]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를 통해 Grade K부터 Grade 8까지 학년급별로 철자 이름 말하기 LNF: Letter Naming Fluency, 음소 분리하기 PSF: Phonemic Segmentation Fluency, 비단어 읽기 NWF: Nonsense Word Fluency, 일반 단어 읽기 Word Reading Fluency, 문단 읽기 ORF: Oral Reading Fluency, 문맥 속 단어 고르기 Maze 등의 다양한 읽기 능력 평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University of Oregon 2021a, b).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어 있는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기본 어휘 목록,’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처럼 파닉스에 대해서도 철자-음소 대응 규칙과 평가를 위한 일반 단어 및 유사 단어 목록을 학년급별로 체계화해 제시할 수 있다면 일선 교사들이 파닉스를 지도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성과 효율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학교

2022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파닉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취기준이 없고 발음 요소에 대해서 표 9와 같이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표 9>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교육부 2022, 20-22)

(이해)
[9영01-01] 단어, 어구, 문장을 듣고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식별한다.
(표현)
[9영02-01]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활용하여 단어, 어구, 문장을 말한다.

이러한 성취기준에 대해 2022 교육과정에서는 발음 요소에 대해 표 10과 같이 해설과 적용 시 고려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표 10> 2022 영어과 교육과정 중학교 발음 요소 관련 성취기준 해설 및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교육부 2022, 20-23)

(성취기준 해설)

[9영01-01] 이 성취기준은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어구 또는 다양한 언어 형식의 문장을 듣고 영어의 리듬, 강세, 억양뿐만 아니라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식별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9영02-01]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영어의 리듬, 강세, 억양뿐만 아니라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실제 상황에서 단어, 어구,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말하기·쓰기 활동의 과정 중에는 의미 전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교사의 즉각적인 오류 수정을 자제하여 유창성을 높이도록 지도하며,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유창성뿐만 아니라 정확성에도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중학교의 성취기준과 해설, 적용 시 고려사항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통한 이해와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이해하고, 자신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발화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기는 쉽지 않다. 고려 사항에도 제시되었듯이 유창성과 정확성에 적절한 균형을 두고 지도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휘와 문법을 제외하고 발음에만 초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발화를 정의한다면 비록 외국어 말투 *accentedness*가 묻어 나더라도 이해가 가능하고 *intelligible*, 이해하기가 쉬운 *comprehensible* 발화 일 것이다. 발음의 이해가능성 *intelligibility*에는 분절음의 오류가 초분절음의 오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는 연구도 있지만(Jenkins 2000), 이해도 *comprehensibility* 측면에서는 분절음의 오류뿐만 아니라, 초분절음 요소 가운데는 억양을 제외하고 단어 강세의 오류와 발화 속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ito/Shintani 2016). 결국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발음을 위해서는 분절음의 오류를 줄이고, 단어 강세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리듬과 발화 속도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어 발음 교육에서 정확한 발음이라는 것은 영어 원어민의 발음과 동일한 발음이라기 보다는 개별 분절음들 간의 구분이 명확히 될 수 있는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원어민들의 /ɪ/ 발음은 혀가 윗 천장에 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2언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설전음 *tap*처럼 혀가 살짝 닿을 수도 있고, 그것이 /I/과 분명히 구분이 되고, 대화 상대방이 충분히 그 두 음을 구분해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모음의 경우에도 영어 원어민들은 긴장 모음 /i/와 이완 모음 /I/의 음가가 분명히 구분되게 발

음하지만, 제2언어 영어 사용자의 경우에는 그 두 음을 길이 차이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원어민과는 다른 음가지지만 서로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대화 상대방이 알아듣는 데 문제가 없다면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정확한 발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언어 학습자 집단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국어의 영향이 묻어있는 자신의 발음을 대화 상대방이 정말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동일 언어 집단일 경우 화석화된 발음에 서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국어를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학습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의 피드백이 없더라도, 자신의 어떤 발음이 상대방에게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는 요소인지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의 자음과 모음의 변별에 대한 상대적 기능 분담량 *relative functional load*(Celce-Murcia/Brinton/Goodwin 2010)과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변별음들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상대적 기능 분담량은 영어 전체 단어들 가운데 변별을 이루는 두 음의 차이로 인해 최소대립쌍 *minimal pair*을 이루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이루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상대적 기능 분담량이 높다는 것은 두 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발음하지 못할 경우 만약 품사가 같다면 다른 단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한국인들은 영어 자음 중에서는 /p/와 /f/, /b/와 /v/, 무성 파열음과 유성 파열음, /s/와 /ʃ/, /l/과 /ɹ/을 변별해서 발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match'와 같이 어말의 파찰음을 발음할 때 모음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다. 영어 모음 중에서는 /i/와 /ɪ/, /eɪ/와 /ɛ/, /u/와 /ʊ/와 같이 긴장 모음과 이완 모음 간의 변별, /ɛ/와 /æ/, /ʌ/, /ɑ/ 네 모음을 서로 변별해서 발음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Avery/Ehrlich 1992). 하지만, 상대적 기능 분담량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이 어려워하는 자음 변별음들 중 어두 위치에서는 /l/과 /ɹ/의 상대적 기능 분담량이 가장 크고(83%), /p/와 /f/가 그 뒤를 잇고(77%), 유/무성음의 변별 가운데서는 /t/와 /d/(73%)만이 유의미한 상대적 기능 분담량을 보여주고 있다. 어말 위치에서는 /t/와 /d/의 구분만이(72%) 의미 있는 상대적 기능 분담량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변별 자음 중 다른 자음의 변별음들은 상대적 기능 분담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Celce-Murcia/Brinton/Goodwin 2010).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모음 중에서는 /i/와 /ɪ/ 변별음의 상대적 기능 분담량이 95%로 아주 높고, /æ/와 /ɑ/의 변별이 66%, /æ/와 /ʌ/가 65%, /ɑ/와 /ʌ/가 61%, /eɪ/와 /ɛ/가 42.5%, /ɛ/와 /æ/가 42%, /ɛ/와 /ʌ/가 31%의 상대적 기능 분담량을 보여주고 있다. /u/와 /ʊ/의 변별은 한국인들이 구분을 어려워하는 발음이기도 하지만, 상대적 기능 분담량이 크지 않다(Celce-Murcia/Brinton/Goodwin 2010).

영어 원어민이나 영어 비원어민 영어 화자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이해가능한 발음을 위해서 분절음의 정확성에 초점을 둔다면, 위에서 제시된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자·모음 가운데 상대적 기능 분담량이 큰 변별음들에 초점을 두고 교과서 제작이나 발음 활동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의 음에만 초점을 두는 활동은 무의미하고 반드시, 두 음의 변별이 가능한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야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분절음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단어 강세와, 리듬, 억양 모두에서 한국어와 영어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분절음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Avery/Ehrlich 1992). 하지만 Jenkins(2000)와 Saito/Shintani(2016) 등의 선행 연구를 보면 초분절음 가운데는 단어 강세, 핵 강세 nuclear stress의 위치, 발화 속도와 같은 리듬이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만, 억양 유형은 한국인 등의 영어 비원어민들이 구현하기 어려워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이나 이해도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어 강세의 경우, 예를 들어 ‘comedy’ 단어에는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외래어를 발음하듯이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두게 되면 맥락이 유사할 경우 ‘committee’로 이해하게 된다. 또 단어 강세가 있는 음절의 모음은 완전 모음 full vowel으로 발음되고, 강세가 없는 음절의 모음은 약화 모음 reduced vowel으로 발음되기 쉬운데, 이 모음의 약화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으면, 단어 강세의 위치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Ottawa’는 일반적으로 미국 영어에서 첫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오면서 두 번째 음절과 세 번째 음절의 모음은 약화가 되어 [əwə]로 발음해야 하는데, 우리말을 발음하듯이 [o'tawa]로 발음한다면, 이해와 표현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미국으로 이사 가서 각종 신고를 하면서, 주소를 알려줄 때 강세와 약화 모음을 제대로 구현하거나 알아 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화는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문장 강세는 발화 속의 내용어 content word에 주로 부여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리듬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문장 강세를 받는 단어 가운데 발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에 핵 강세가 부여되는데, 핵 강세는 발화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강조를 하거나, 대조를 할 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문장 강세가 단어 강세와 더불어 제대로 부여되면 리듬도 자연스럽게 구현될 수 있다.

억양의 정확한 구사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거의 없지만, 억양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억양은 발화의 형태를 표시하는 문법적 의미 grammatical meaning가 있고, 감정 등을 드러내는 어휘적 의미 lexical meaning가 있다. 문법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의문문이 평서문으로, 몰라서 묻는 부가 의문문이 확인을 위한 부가 의문문으로, 닫힌 선택 의문문 closed-choice alternative question이 열린 선택 의문문 open-choice alternative question으로 오해될 수 있다. 어휘적 의미가 억양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Thank you.’라고 발화하면서 억양이 높게 상승한 후 하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억양이 하강의 유형을 보인

다면 전혀 고맙지 않고 오히려 귀찮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청자가 듣고 이해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좋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억양을 통해 잘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억양의 중요성이 제대로 부각 되지 않은 것은 의사소통의 이해가능성이나 이해도만 판단하고 발음이 의사소통에 미치는 적절성 appropriateness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도 내용 요소에 자연스러움과 유창성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발음의 적절성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III. 교수·학습 및 평가 비교

교사의 수업 현장이나 교과서 제작을 위해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가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은 큰 틀만 제시하고 내용 요소나 교수·학습 및 평가는 전적으로 현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2022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및 어휘,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등은 여전히 기존과 같이 한정된 틀 속에 가둬두고는, 교수·학습 및 평가는 개념적인 요소들만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이지 못해 교실이나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수·학습의 방향에서는 능동적인 학습, 디지털 교수·학습 도구 활용, 창의적인 활동, 온오프라인 연계 학습, 통합적 사고, 개별화 수업, 진로 연계 수업 등이 언급되고 있고,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온오프라인 자료, 에듀테크의 활용이 언급되고 있다. 평가의 방향에서는 역량 중심 평가, 학생의 성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 맞춤형 평가, 디지털 평가 도구의 활용, 맞춤형 피드백 제공이 언급되고 있고, 평가 방법에서는 명확한 안내, 신뢰도 유지, 평가 결과의 활용, 환류 효과, 다양한 평가 방법, 명확한 평가, 통합적 평가, 보충 자료 및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학습,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듀테크 활용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전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에듀테크 활용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추가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는 파닉스나 발음 요소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파닉스나 발음 요소가 인공지능 기술이나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수·학습 및 평가 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요소 중의 하나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드백을 통한 환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평가인데, 파닉스나 발음 요소의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은 평가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피드백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척되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IV. 결론

이 논문에서는 2022 영어과 교육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체계,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파닉스와 발음 요소를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 보고 장·단점과 개선점을 논의하고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초등학교에서 파닉스 교육이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표현' 영역에서 '소리나 철자를 결합하여 단어 말하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 구체적인 파닉스 활동 방법과 체계적인 철자-음소 대응 규칙과 평가를 위한 일반 단어 및 유사 단어 목록을 학년급별로 체계화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파닉스는 중학교에서도 철자의 대표 음가 이외의 다양한 음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표현' 영역의 '언어' 내용 요소에 '단어의 발음'이 추가되어야 하고, '과정·기능'의 내용 요소에는 '철자의 다양한 발음 활용하기'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발음 요소는 개별 분절음의 경우 한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과 상대적 기능 분담량을 함께 고려해 교수·학습 및 평가의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단어 강세, 문장 강세, 핵 강세, 리듬 및 억양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것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연음과 축약은 리듬의 하위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성취기준에는 발음의 자연스러움과 유창성뿐만 아니라 적절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교수·학습 및 평가에 파닉스 및 발음 요소 지도를 위해 인공 지능 기술과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바람직한 피드백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세종: 교육부.
교육부(2022):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4], 세종: 교육부.
정현성(2022): 체계적, 종합적 음철법에 기반해 개발된 유아 파닉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교사교육연구 61(4), 435-454.
Avery, P./Ehrlich, S.(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elce-Murcia, M./Brinton, D. M./Goodwin, J. M.(2010): Teaching pronunciation: A course book and reference guid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rnell, C. A./Solithy, J. E./Wall, H.(2017): Decoding the phonics screening check, In: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3(3), 505-527.
Jenkins, J.(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ito, K./Shintani, N.(2016): Do native speakers of North American and Singapore English differentially perceive comprehensibility in second language speech? In: TESOL Quarterly 50(2), 421-446.

University of Oregon(2021a): 8th edition of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DIBELS®): Administration and scoring guide, 2021 edition. Available from: <https://dibels.uoregon.edu>

University of Oregon(2021b): DIBELS®: 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 Available from: <https://dibels.uoregon.edu>

부록

부록 1

영국의 파닉스 능력 검사를 위한 철자-음소 대응 규칙(GPCs) 예시(Darnell/Solity/Wall 2017, Table S1)

Grapheme (Letter)	Number of mappings specified for the grapheme	Phoneme (Sound)	Example word	Section of the check the GPC can appear in
a	2	æ ɑ	cat father	1 & 2 2
a-e	1	eɪ	came	2
ai	1	eɪ	bait	2
air	1	ɛə	air	2

부록 2

2012년 영국의 파닉스 능력 검사에서 제시된 일반 단어 목록 상세(Darnell/Solity/Wall 2017, Table S3)

Words	Phono- logical representa- tion	No. of GPCs in the word	No. of graph- emes with single map- pings	No. of graph- emes with speci- fied multi- ple map- pings	Which grapheme?	What are the specified phonemes?	How many possible pronunciations of the word are there?
chip	[tʃɪp]	3	1	2	ch and i	tʃ, k or s and ɪ or i:	6
jazz	[dʒæz]	3	2	1	a	æ and ɑ:	2
farm	[fɑ:m]	3	3	0			1
thorn	[θɔ:n]	3	2	1	th	θ or ð	2
stop	[stɒp]	4	2	2	s and o	s or z and ɒ or əʊ	4
truck	[trʌk]	4	3	1	u	ʌ (ʊ) or ju:	2
jump	[dʒʌmp]	4	3	1	u	ʌ (ʊ) or ju:	2
lords	[lɔ:dz]	4	3	1	s	s or z	2
fair	[feə]	2	2	0			1
flute	[flu:t]	4	3	1	u-e	u: or ju:	2
goat	[gəʊt]	3	2	1	g	g or dʒ	2
shine	[ʃaɪn]	3	3	0			1
crept	[kri:pt]	5	3	2	c and e	k or s and ε or i:	4
shrubs	[ʃrʌbz]	5	3	2	u and s	ʌ (ʊ) or ju: and s or z	4
scrap	[skræp]	5	2	3	s, c and a	s or z, k or s and æ or ɑ:	8
stroke	[stɹəʊk]	5	4	1	s	s or z	2

index	[ɪn][deks]	5	3	2	i and e	ɪ or i: and e or i:	4
turnip	[tɜː][nɪp]	5	4	1	i	ɪ or i:	2
waiting	[wei][tɪŋ]	5	4	1	i	ɪ or i:	2
portrait	[pɔː][tʁet]	6	6	0			1
Totals		81	58	23			54

부록 3

2012년 영국의 파닉스 능력 검사에서 제시된 유사 단어 목록 상세(Darnell/Solity/Wall 2017, Table S2)

Pseudo words	Phono-logical representation	No. of GPCs in the word	No. of graphemes with single mappings	No. of graphemes with specified multiple mappings	Which grapheme?	What are the phonemes?	How many pronunciations of the pseudo-word are there?
pib	[pɪb]	3	2	1	i	ɪ or aɪ	2
vus	[vʌs]	3	1	2	u and s	ʌ (ʊ) or ju: and s or z	4
yop	[jɒp]	3	2	1	o	ɒ or əʊ	2
elt	[ɛlt]	3	2	1	e	ɛ or i:	2
desh	[deʃ]	3	2	1	e	ɛ or i:	2
chab	[tʃæb]	3	1	2	ch and a	tʃ, k or ʃ and æ or ɑ:	6
poil	[pɔɪl]	3	3	0			1
queep	[kwɪ:p]	3	3	0			1
stin	[stɪn]	4	2	2	s and i	s or z and ɪ or aɪ	4
proom	[pru:m]	4	3	1	oo	ʊ or u:	2
sarps	[sɑ:ps]	4	2	2	s (twice)	s or z (twice)	4
thend	[θend]	4	2	2	th and e	θ or ð and ɛ or i:	4
kigh	[kaɪ]	2	2	0			1
girst	[gɜ:st]	4	2	2	g and s	g or dʒ and s or z	4
baim	[beɪm]	3	3	0			1
yune	[ju:n]	3	2	1	u-e	ju: or u:	2
flods	[flɒds]	5	3	2	o and s	ɒ or əʊ and s or z	4
groiks	[grɔɪks]	5	3	2	g and s	g or dʒ and s or z	4
strom	[stɹɒm]	5	3	2	s and o	s or z and ɒ or əʊ	4
splaw	[splɔ:]	4	3	1	s	s or z	2
Totals		71	46	25			56

Abstract

Analysis of Phonics and Pronunciation Elements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CHUNG, Hyunsong (Prof. Korea National Univ. of Educ.)

In this paper, the elements of phonics and pronunciation presented in the content elements, achievement standards,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s sections of the common curriculum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2015 curriculum, and recommendations are made. Initially, it is a positive development that phonics instruction is being emphasized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However, in the 'production' category, the statement 'speak words by combining sounds or letters' must be added. In addition, phonics teaching methods,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s, and a list of words and pseudo-words that can be used for phonics assessment should be presented systematically according to grade level. Additionally, phonic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so that students acquire various grapheme-phoneme correspondences. "The pronunciation of words" should be included in the "language" category of "production" content elements, and "the use of pronunciation variations of letters" should be included in the "procedure and function" category content elements. In teaching, learning, and assessing pronunciation,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pronunciation difficulty of Korean English learners and the relative functional load of English sounds. A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individual segments, word stress, sentence stress, nuclear stress, rhythm, and intonation should be regarded as significant. However, since linking and contractions are sub-elements of rhythm, their inclusion in the curriculum is unnecessary. Not only should achievement standards reflect the naturalness and fluency of pronunciation, but also its appropriatenes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optimal feedback model in order to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EduTech extensively in the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of phonics and pronunciation.

key words: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발음, 파닉스, 발음교육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English, Pronunciation, Phonics, Pronunciation teaching

『외국어교육』 제25집

논문투고일: 2022. 11. 30.

논문심사일: 2022. 12. 20.

게재확정일: 2022. 12. 24.